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2월 미 도매 물가 안정적.... 달걀값은 급등
- WSJ: 소비자 불안, 모든 계층으로 확산
- Bloomberg: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
- CNBC: 미 예산적자 2월에 벌써 1조 달러 상회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국채 계속 하락... 투자자들 관세 리스크 우려 탓
- Bloomberg: 증시, 3주간 매도세... 관세 우려 커져

[뉴욕시]

- Bloomberg: 맨해튼 임대료 최고치 상승... 입찰 경쟁 커져
- Bloomberg: 뉴욕시 인구 다시 증가한다

[무역 전쟁]

- WSJ: 트럼프, 유럽산 샴페인과 와인에 200% 관세 위협

[주택]

- CNBC: 텍사스에 3D 주택 단지 세워진다

[에너지]

- CNNBusiness: 미국 휘발유 가격 하락, 트럼프 정책과 무관
- WSJ: IEA, 무역 긴장감으로 석유 수요 감소, 공급 과잉 경고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 편의점 품목 판매량 하락
- WSJ: 휴고 보스, 소비자 심리 약세 속 불확실성 경고
- Bloomberg: Dollar General, 불황 완화 조짐에 주가 상승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Producer-Price Inflation Flattened Last Month—But Egg Costs Soared

2월 미 도매 물가 안정적.... 달걀값은 급등

- 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제 수요일 완만하게 둔화된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2월 도매물가지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월의 경우 당초 추정치인 0.4% 상승률이 0.6%로 최종 확인됐다.
-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에 해당 데이터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 전반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에 비해 3.2% 상승해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 그러나 2월 달걀값은 53% 이상 상승해 전반적인 제품 물가 0.3%를 부추겼다. 반면에 서비스 물가는 0.2% 하락했다.

WSJ 기사

WSJ: Consumer Angst Is Striking All Income Levels

소비자 불안, 모든 계층으로 확산

- 미국에 관세와 인플레이 그리고 잠재적인 침체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모든 계층에서 소비가 줄고 있다.
- 소비자들이 지출에 신중해지면서 올 초 이래 소매업체들은 지출이 줄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기본 생필품에서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월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매월 말에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작은 크기의 품목을 구매할 정도로 가계 예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Edge Down, Remaining Near Pre-Covid Levels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

-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3월 8일 끝난 주에 청구 건수는 2천 건 줄어든 22만 건을 보였다. 전문가 당초 예상치는 22만 5천 건이었다.
- 연속적으로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지속된 청구 건수는 1백87만 건으로 줄어들었다.
- 한마디로 트럼프 무역전쟁과 연방 공무원 감원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다.

Bloomberg 기사

CNBC: U.S. budget deficit surged in February, passing \$1 trillion for year-to-date record

미 예산적자 2월에 벌써 1조 달러 상회

- 미국의 부채와 적자 문제가 트럼프 취임 초 동안에 악화되고 있다. 아직 연방 회계연도가 반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2월에 예산 적자는 1조 달러를 넘어섰다.
- 정부지출은 월간 기준으로 소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수입을 초과하고 있다고 연방 재무부는 밝혔다.
- 2월의 재정적자는 3천70억 달러로 1월보다 2.5배, 작년 동월보다 3.7% 상승했다.

-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연방 회계연도 5개월까지 전체 적자는 1조 1천 1백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CNBC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Treasurys fall as investors look past data to tariff risks 미 국채 계속 하락... 투자자들 관세 리스크 우려 탓

- 오늘 미 생산자 물가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여파에 우려심을 보이면서 국채가 3일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오늘 목요일 국채 금리는 적어도 2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유럽산 와인과 샴페인에 대한 관세 위협 소식의 여파에 대해 투자자들은 저울질하고 있다.
- 연준의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금리의 경우 4%로 상승했으며, 10년물의 경우 3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3%에서 거래되고 있다. 곧, 유럽산 와인 등에 대한 관세 우려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tock Selloff Deepens as Trade-War Fears Heat Up: Markets Wrap

증시, 3주 매도세... 관세 우려 커져

- 미 증시가 3주간 하락세를 보이면서 S&P 500은 10% 하락 조정 영역에 근접했다.
- 오늘 목요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하는 희소식이 월가에 안도감을 주었지만, 주식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 여파에 대한 계속된 우려 때문이다.
- S&P 500은 어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속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1주일도 째 다가오지 않은 연준의 정례 회의에서 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투자자들은 예상하고 이 같은 현상이 6월과 7월까지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현재 S&P 500과 나스닥은 1%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Manhattan Apartment Rents Jump to Record as Bidding Wars Spread

맨해튼 임대료 최고치 상승... 입찰 경쟁 커져

- 전체 입찰의 4분의 1이 경쟁 입찰이 될 정도로 치열한 가운데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 부동산 평가사 Miller Samuel Inc.에 따르면 지난달 임대료가 평균 4천5백 달러로 임대 예약을 했다. 이는 작년 동월보다 6.4% 증가했으며 지난 2023년 여름의 최고치 가격에서 1백 달러 상승폭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ew York Population Rebound Faces Test Under Trump Migrant Plans 뉴욕시 인구 다시 증가한다

- 센서스 보고에 따르면 뉴욕시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팬데믹 초기에 큰 인구 감소를 경험했던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 현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들의 국제 유입인데 앞으로 뉴욕시의 인구 변동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하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거리다.
- 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온화한 선벨트 지역으로 옮기고 있으며 가장 빨리 인구 성장이 이뤄지는 메트로 지역 10개 중 9개가 남부 지역이며, 주로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다.

Bloomberg 기사

[무역 전쟁]

WSJ: Trump Threatens 200% Tariffs on European Wine, Champagne 트럼프, 유럽산 샴페인과 와인에 200% 관세 위협

- 유럽은 트럼프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4월 1일부터 미국산 위스키 등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이에 대한 보복으로 트럼프는 유럽산 샴페인과 와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 그는 “유럽 관세가 즉각 사라지지 않는다면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와인과 샴페인 업체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주택]

CNBC: Take a look inside the world's largest 3D printed housing development 텍사스에 3D 주택 단지 세워진다

- 미국 두 번째로 큰 회사인 Lennar와 3D 회사인 Icon이 합작으로 텍사스 조지타운에 1백 개의 3D 주택을 조성했다.

- 이들 주택은 침실 두개나 세 개 모델로 40만 달러 미만에서 가격이 시작된다. 이러한 주택의 75%는 이미 팔린 상태다.
- 이 회사들은 텍사스에 더 많은 3D주택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세울 예정이다.

CNBC 기사

[에너지]

CNNBusiness: Gasoline prices are coming down. But Trump's drill-baby-drill promises are not the reason

미국 휘발유 가격 하락, 트럼프 정책과 무관

- 미국 휘발유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 가격 하락은 OPEC+의 생산 확대와 중국의 수요 감소 등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미국 내 원유 생산은 정체 상태에 있다고 석유 분석가 Andy Lipow는 밝혔다.
- 트럼프가 부과한 철강 관세로 석유 시추용 철강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drill-baby-drill" 정책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Business 기사

WSJ: IEA Says Trade Tensions Weigh on Oil Demand, Warns of Supply Surplus

IEA, 무역 긴장감으로 석유 수요 감소, 공급 과잉 경고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무역 긴장이 심화되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석유 수요 증가 전망을 하루 120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과 석유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 IEA는 올해 글로벌 원유 공급이 하루 60만 배럴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OPEC+가 4월 이후 생산을 늘릴 경우 추가로 하루 40만 배럴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 OPEC+의 원유 공급량은 2월에 하루 21만 배럴 증가했으며, OPEC+는 점진적으로 일부 감산을 해제할 계획이나, 실제 증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Shoppers Are Skimping on Cigarettes, Doritos and Twinkies

미 편의점 품목 판매량 하락

- 시장조사기관 Circana에 따르면, 2월 23일 마감된 회계연도에 미국의 편의점 판매량이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 가격 상승과 건강 우려로 소비자들이 스낵과 담배 소비를 줄인 것이 주된 원인으로, 특히 쌀과자, 견과류, 육포 등과 같은 제품의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 가운데, 복권은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 중이다.
- PepsiCo, Smucker, Reynolds American 등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겨냥해 미니 식사, 한정판 스낵, 저가형 담배 등 신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WSJ 기사

WSJ: Hugo Boss Warns of Lingering Uncertainty Amid Weak Consumer Sentiment

휴고 보스, 소비자 심리 약세 속 불확실성 경고

- 독일 패션 브랜드인 휴고 보스는 소비자 심리가 위축과 매장 방문 감소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며, 중국의 불확실한 회복, 주요 시장의 거시경제 압박, 지정학적 긴장과 등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휴고보스 CEO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연간 전망치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42억~44억 유로, 영업이익(EBIT)은 기존 전망치 5%에서 22%로 증가한 3억 8천만~4억 4천만 유로로 전망했다. 가격 인상은 반영하지 않았다.
- 중국의 소비 둔화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이 감소했으며, 중국 내 사업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브랜드 재편과 매장 네트워크 최적화, 비용 절감,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수익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WSJ 기사

Bloomberg: Dollar General Shows Signs of Easing Malaise, Shares Rise

Dollar General, 불황 완화 조짐에 주가 상승

- Dollar General은 올해 매출이 최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주가는 6%까지 상승했다.
- 이러한 전망은 저소득층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인 할인점들의 최근 불황이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다.
- Dollar General의 어려움에 더해, 소비자 지출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마트, 디스 스포츠용품, 메이시스를 포함한 소매업체들의 올해 전망은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일부 체인점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가격 인상 유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관세전쟁 격랑 속 美인플레 우려 완화...뉴욕증시, 나스닥

1.2%↑

기술주 중심 저가 매수 유입 S&P 0.5%↑...다우지수는 0.2%↓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발효하고 유럽과 캐나다 등이 보복관세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뉴욕증시에서 기술주가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23포인트(0.49%) 오른 5,599.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2.35포인트(1.22%) 오른 17,648.45에 각각 마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